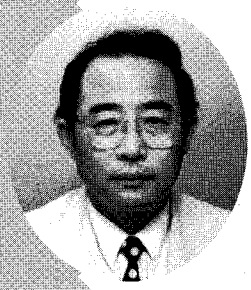
편집위원 기고

철새들의 떼죽음과 환경후진국

환경선진국 도약위해 의식전환 선행돼야
철새 도래지에 들어선 청둥오리집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보 길
KBS 해설위원

흔히 우리는 흰 모시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우아한 여인을 학(鶴)에 비유하곤 한다. 자태가 너무 고고해 감히 이 학같은 여인에겐 한마디 말도 붙일 수 없을것 같고 곁에 가기라도 하면 불경을 범하기라도 할것같은 느낌을 갖기도 한다.

우리의 옛 선조들도 학은 상서로운 동물로 보고 대궐잔치나 역귀를 쫓는 의식에 학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문헌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조선시절, 대궐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나 세모에 역귀를 쫓는 의식을 치른뒤 학춤을 추었는데 이때 청학(靑鶴)과 백학(白鶴)의 탈을 쓴 무동이 향악에 맞춰 학의 동작으로 춤을 추었다고 한다.

가끔 TV를 통해 이 학춤을 보면 마치 자신이 비경에 들어와 선녀들의 춤을 보고 있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갖게도 한다.

백년해로 하면서 천년을 산다는 영물로 알려진 학. 이 학은 우리말로 두루미라고 한다. 실제수명은 30~40년 정도인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가족단위로 생활하며 한쪽 배우자가 죽을때까지 절대로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두루미들이 최근 한반도에 날아왔다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야생조류들의 떼죽음 사건 가운데서 우선 지난

4월초순에 일어난 흑두루미들의 떼죽음사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흑두루미 1백여마리가 김포시 동진면 귀전2리 농경지에서 먹이를 먹던중에 11마리가 갑자기 쓰러져 7마리는 현장에서, 4마리는 후송도중 죽었다.

전세계에 8천마리밖에 없다는 희귀조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일본에서 시베리아로 북상하던중 사고지역에서 농약이나 폐수 등 독극물을 잘못먹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수의과학연구소에 보내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갔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초에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해평면 낙동강변에서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 9마리가 독극물에 중독돼 떼죽음을 당하고 한마리만 살아있는 것이 발견됐다.

살아남아있던 한마리는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박희천교수의 실험실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박교수는 재두루미들이 밀렵꾼이 뿌려 놓은 독극물이 들어있는 볍씨등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이틀후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재두루미 22마리가 떼죽음을 당한채 발견됐다.

현장조사결과 9마리가 떼죽음을 한지역에서 2㎞쯤 떨어진 강건너편 모래사장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농약 등 독극물을 먹고 숨진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로써 구미 낙동강 일대에서 떼죽음을 당한 재두루미는 모두 37마리나 됐다. 문화재관리국은 구미 낙동강변에서 죽은 재두루미 중 두마리를 부검한 결과 위속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용 농약이 각각 230.25ppm, 8.83ppm이 발견됐다' 면서 '치사량이 3.1ppm인 오리의 경우에 비추어 두루미들도 농약으로 인해 죽은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두루미 떼죽음 현장을 지켜본 경북대학교의 박희천교수도 죽은 재두루미들은 외상이 없어 밀렵꾼들이 뿌려놓은 독극물이 들어있는 볍씨 등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두루미가 죽은채 발견됐던 낙동강변에서 사냥꾼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엽총탄피까지 발견됐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전문 밀렵꾼들에 의해 두루미들이 희생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당시만해도 재두루미의 박제가 천만원이상에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97년 10월에는 경남 거제도 사등면 사곡마을과 그 주변에서 2백여마리의 백로와 왜가리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무리를 지어 강남인 필리핀으로 날아가기 위해 우리나라 최남단인 거제도에서 마지막 출발준비를 하며 휴식과 먹이를 찾고 있다가 일어난 참사였다.

이들 조류들은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명히 독극물에 의한 독살임이 분명했다. 더욱이 인근 도서지방에 살아있는 3백여 마리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모두 죽게될 것이란 소식이었다. 그리고 작년봄 경기도 파주군 임진강변의 모부대안에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들이 죽었다. 이 새는 매년 겨울에 모두 50여마리가 휴전선 부근에만 찾아온다고 한다. 매우 희귀한 새이기 때문에 보호해야할 조류다. 그런데 몰상식한 사람들이 오리를 잡기 위해 풀어놓은 독극물을 먹고 죽은 오리들을 또다시 독수리가 먹고 무려 38마리가 죽은 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농약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잡초방제 노력의 감소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등 안정적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농업자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일에 악용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속적 감시활동 · 행정체계 개선해야

현재 지구상에 알려진 야생조류는 8천6백여종으로 그중 10%

가 넘는 천여종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조류 4백여종 중 절반 이상이 하천 및 하구를 포함하는 습지에 살고있고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전세계에 알려진 철새도래지이나 이들 습지 대부분이 임해공단이나 농지로 전환되어 우리나라에 오는 수많은 조류들이 위협을 받고 있던 참인데다 설상가상으로 독극물과 사냥총으로 마구 해치고 있으니 우리의 자연보전의식과 관리능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6년 7월 우리나라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 등 희귀철새의 보호연구와 공동조사에 일본과 협력하기로 하고 '한일 두루미 보전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밖으로는 두루미를 철저히 보호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안에서는 이런 떼죽음을 막지 못했으니 앞으로 쏟아질 국제적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등은 재두루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독수리, 흑독수리 등 12종의 새와 함께 재두루미를 적색목록에 올려놓고 각국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철새도래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청둥오리집이니 하는 음식점은 무엇이며 이를 허가해준 관청은 도대체 어느나라 관청인지 그저 답답하다.

당국은 그저 희귀동물이나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만하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 아닐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재두루미 등 철새들은 개발과 오염 등으로 도래지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거기다가 독극물 사냥까지 멋대로 자행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루미나 고니 등의 우아한 자태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환경후진국에서 벗어나기위해 강력한 감시활동과 행정체계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자연환경 후손에 물려줘야

현재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식물을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재관리국은 이들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지않아 주로 감시업무에만 그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야생조수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지자체나 경찰들은 앞으로는 문화재관리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야생동물 특히 천연기념물의 살생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중대범죄로 규정해서 약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 이번기회를 계기로 우리국민의식을 전환할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철새 등 조류와 야생동물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것은 우리국민들의 한심한 의식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을 독살하고 사냥해 먹는것이 특권처럼 여겨졌던 때는 이미 지났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철새도래지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와 농지나 임야, 습지, 뻘 등을 현대화란 미명아래 마구 파괴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

생물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곧 우리 인간 환경의 파괴를 상징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철새들의 떼죽음을 계기로 철새 도래지에 대한 감시활동과 주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강화하는.등 천연기념물 및 철새보호정책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삼 말하지만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야생조수들의 남획을 중대범죄로 규정해서 사건이 날적마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것이며 감시조직도 일원화하는 등 행정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새들도 살지 못하는 땅은 곧 죽음의 땅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새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